

지역 소식통



정읍, 청소년 문화교류 시간 '문화 체험 여행 서울나들이'

정읍지역 중등 1~2학년 청소년 80명이 서울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놀아보자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읍과 서울 청소년의 문화교류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참가자들은 서울의 주요 명소를 탐방과 함께 즐거운 여가시간도 가졌다. 첫 날에는 청소년 문화 체험 여행 서울나들이 라는 테마로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다양한 스케이트를 즐기고 문화교류 마감을 했다. 둘째 날은 '대학생활 미리 알아보' 라는 주제로 일정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서울대를 견학한데 이어 국회의사당, 한정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야구장도 찾아 경기를 즐겼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체험했다. 경복궁과 광화문, 서대문 형무소를 돌아봤다. 한편 다음 달 18~20일에는 서울 청소년 80명이 정읍을 찾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계화능형과 경관단지협의회 벗꽃 축제추진위원회가 제1회 계화 유채 쌀 축제 그리고 벗꽃 이야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관단체 협약식을 6일 이석훈 계화능형 조합장과 고성읍 경관단지협의회 회장 김규태 벗꽃축제추진위원장, 김종규 부안군수,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화면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각 기관·단체들은 협약에 따라 각자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계화 유채 쌀 축제를 전국 대표적 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간척농업 중심지에서 열리는 유채 쌀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돼 계화면이 6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2023 세계잡거리 부안 새만금 개최를 통해 간척지 농촌체험관광이 글로벌 대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시민행복도시 실현 · 신규 시책 발굴

정읍시, 2018년 예산편성 위한 주요시책 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시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 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생기 시장 주재로 2018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 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김용만 부시장을 비롯한 33개 과소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산산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굴한 276개의 시책을 검토했다.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 시책과 국가예산 확보 사업,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따른 실행 계획과 해결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시책 발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책을 보면 ▲수재천, 도 지정 문화재 등록 추진 ▲미술관 진입로 '아트로드' 조성 ▲정읍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 ▲농업인력지원센터 구축 ▲정읍시 베이플 스타(Star) 전국 오디션 페스티벌 등이다. ▲동절기 가금류 휴업보상제 ▲지역 맞춤형 실증 시범사업 ▲반려동물 사료생산 특새농업 육성 ▲중소기업 취업연수 사업 ▲범죄 취약지역 4방향 CCTV설치사업 ▲내장산 메이플 힐링랜드 조성 ▲연지동 도시계획도로(정읍역 뒤) 개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교통약자 편의증진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시정홍보자료 아카이브 시스템(DB) 구축 ▲찾아가는 마을 점방 등 다양한 시책이 제시됐다. 김 시장은 "이제 민선6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우리시 미래100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굴된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 실행 가능성이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특히 "한정된 시비만으로 주요 핵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만큼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 확보 노력을 풀가동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한 후 시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진행 '착착'

지난해 12월 본격적 공사 들어간 대일 내장산 골프장 내년 9월 개장 계획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내장산리조트는 내장산 사계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08년부터 한국관광공사와 정읍시가 공동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내 경기 침체와 부지의 저조 등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민선 6기인 2015년 조성을 완료, 분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분양대상 면적 111만7550㎡ 중 96만5623㎡가 분양됐다. 현재 분양률은 86.8%로, 계획대로 분양 중에 있다. 골프장 부지와 여관과 펜션, 상가 부지 등 소형 부지가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대형 숙박시설이나 워터파크 등 중·대형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추가 분양공고 했다. 시는 추가 분양을 위해 오는 10월 경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대일 내장산골프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토공과 배수처리 시설, 수목이식,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대일 내장산골프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페어웨이(fairway) 잔디 식재를 마치는 등 골프장 부지 전체 지반 정리를 끝냈다. 이달에는 그린(Green)과 골프 티박스(Golf tee box)의 잔디를 식재할 계획이다. 전체 공정률은 60%이다. 현재 클럽 하우스와 골프텔 건축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내년 6월경 시범 라운딩을 거쳐 9월에 정식으로 개장 할 계획이다. 한편 대일 내장산 골프장은 골프텔

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18홀 대중제로 조성되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청정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내장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골프인들이 찾을 전망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 정읍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시대 '활짝'

디지털계량기로 편의성 높여

고창군이 올 3월부터 추진한 기계식 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현재 2만4000여 수용가 중 1만 2000여 수용가의 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4개 읍면에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서 고수면에 개축 등을 제외한 1207전을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실제 검침값과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100%의 통산율로 본격 시행했다. 이 시스템은 검침원 방문 없이 디지털계량기에 연결된 전송단말기가 중계기를 통해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시스템에 전송하면 요금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번 달에는 대신면을 포함한 3~4개면 시행을 계획하는 등 올 11월말까지 교체작업이 완료되고, 12월 중에

고창군 전역에 원격검침시스템이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원격검침은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계량을 할 수 있어 실시간 사용량 조회, 누수 자동진단, 겨울철 동파방지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월부터는 수용가가 실시간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홀로계산 부모님이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알려줘 안전을 체크할 수도 있는 스마트폰 앱인 '부모안심콜'도 개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원격검침과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배려한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5곳 선정

고창군 5개 마을이 산림청 지정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은 무장면 송계마을, 공음면 용수마을, 상하면 태동마을, 대신면 석현마을, 심원면 기산마을로 지난 4일 '고창 비전다짐의 날' 행사에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 포상을 받았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 서약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전국에서 30개 마을, 전라북도에서 30개 마을이 선정됐다. 고창군은 그동안 지역 내 모든 마을

에서 산 인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 운동 등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했으며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힘써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박우정 군수는 "주민 모두가 불법소각 근절에 앞장서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이뤄낸 성과"라며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져 지속적으로 산불 없는 고창군을 만들어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 만들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주산면 배미산 블루베리연구회 영농정보교류장 영농 선진지 호평

부안군 주산면 배미산 블루베리연구회가 견학 및 영농정보교류장으로 변모 영농 선진지로 호평을 받고 있다. 배미산 블루베리연구회는 6일 완주군 블루베리협회 회원 40여 명이 송영백이 농가를 방문해 작물재배현장 견학 및 영농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완주군 블루베리협회 강성용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은 주산면의 대표적 특화품목인 블루베리의 재배 및 가공현장을 방문함으로써 효율적인 작물생산 및 가공, 판매와 함께 방문객을 위한 체험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배미산 블루베리연구회는 지난 2014년 2월 12명의 회원이 참여해 설립한 영농법인으로 1ha의 농지에서 블루베리 묘목 4800여 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법인 공동 농산물 가공 실과 저온 보관창고, 체험판매장을 함께 운영해 품질이 우수한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 채준남 주산 면장은 "농업단체 간 다양한 정보교류와 지속적인 농가지원 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농촌 농민이 행복한 주산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음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온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